

‘대투수’ 양현종, 12시즌 연속 100이닝 ‘대기록’



‘살아있는 전설’...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KBO리그 새역사

탈삼진 2천156개 ‘1위’...11시즌 연속 100탈삼진 ‘-20’ 64 2/3이닝 더하면 ‘11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금자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또 하나의 기록을 완성했다.

양현종은 지난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2시즌 연속 100이닝을 채웠다.

직전 경기까지 99%이닝을 기록 중이던 양현종은 1회초 두산 선두타자 이유찬을 뜬공으로 잡아내며 KBO리그 역대 두번째 기록을 완성했다.

KIA 타이거즈 베테랑 투수 양현종이 지난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구준함의 대명사인 양현종은 2013년(104%), 2014년(171%), 2015년(184%), 2016년(200%), 2017년(193%), 2018년(184%), 2019년(184%), 2020년(172%), 2022년(175%), 2023년(171%), 2024년(171%)에 이어 올해 20경기에 등판 105 1/3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이 부문 최고 기록은 ‘전설’ 송진우 전 한화 이글스 코치가 보유한 13시즌 연속 100이닝이다.

양현종은 앞서 지난 24일 LG와의 경기에서 송진우 코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천600이닝 투구를 달성했다.

양현종은 탈삼진 부문에서도 2천156개를 기록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양현종의 최대 관심사는 KBO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달성 여부다.

그는 지난해 12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이강철(kt 감독), 장원준(전 두산 베어스)에 이어 10시즌 연속 100탈삼진을 기록한 세 번째 투수가 됐다.

현재까지 80개의 탈삼진을 기록 중인 그는 남은 시즌 동안 20개만 더 보태면 전인미답의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2014년 165, 2015년 157, 2016년 146, 2017년 158, 2018년 152, 2019년 163, 2020년 149, 2022년 141, 2023년 133, 2024년 129)에 도달하게 된다.

투구 이닝 부문에서도 또 다른 이정표가 기다린다.

올 시즌 105 1/3이닝을 소화한 그는 앞으로 64 2/3이닝을 더 던질 경우, KBO 최초 ‘11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한편 양현종은 이날 5이닝 3피안 2볼넷 4탈삼진 1실점(자책) 호투를 펼치기도 불펜 난조로 팀이 2대2로 비기며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양현종은 올 시즌 운영철, 황동하, 율리의 이탈로 흔들린 KIA 선발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일과 함께 20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5패 평균자책점 4.70을 기록 중이다.

/주홍철 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서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광주시체육회,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에 폭염 대응 쿨링 포그 등 맞춤형 시설 개선 ‘호평’

광주시체육회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쾌적한 체육시설물을 제공,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31일 “광산구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에 쿨링포그(분안개), 이동식 스프링클러, 냉방 휴게실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는 코스 출입구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주변 온도를 낮추고, 휴장 시간에도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잔디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휴게 공간도 재단장했다. 휴식과 안전을 위해 휴게실 냉방 설치와 냉수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가 정제되는 후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열사병 예방에도 신경을 썼다.

지난 7월 중순 폭우로 강변 파크골프장(서봉, 송촌보, 연제, 운암)이 침수돼 이용이 어려워지자 광주시체육회는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을 오전 5시30분에 조기 개장하는 등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광주시체육회가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에 쿨링포그 등 폭염 대응 맞춤형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들이 쿨링포그를 직접 설치, 대신민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등 자발적인 시설 개선 참여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체육도 복지인 만큼 매년 더워지는 기상 상황에 대비해 체육

시설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폭염과 폭설 등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7회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에서 창단 첫 금메달을 수확한 이해주가 이현승 감독과 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남부대 이해주, 경찰청장기 ‘金 펀치’

팀 창단 첫 金 신고...동구청 복싱팀 신범호·김지웅 금메달

남부대 복싱부 이해주가 팀 창단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이해주는 31일 경북 영주 대한복싱훈련장에서 열린 제7회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 여자 일반부 -51kg급에 출전한 백유니(비스트박스), 심문영(안산 화랑복싱), 김가림(대구 복싱마스터)을 차례로 꺾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을 차지한 이해주는 경찰청 복싱단 채용 면접 자격을 얻게 됐으며, 정식 채용 가능성도 커졌다.

이해주는 “끝까지 믿어주신 감독님과 항상 곁에서 응원해준 팀원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대는 남자일반부 -60kg급 이도윤과 -75

kg급 이재민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현승 남부대 복싱부 감독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하며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이해주 선수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감사한다”며 “이번 우승이 선수 개인은 물론 남부대 복싱부 도약과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청 복싱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남자일반부 -64kg급에 출전한 신범호는 팀 동료 한영훈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91kg에 나선 김지웅은 김정환(김포시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0kg급 결승에 진출한 유기현은 이재현(국군체육부대)에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박희중 기자

‘객관성 확보·빠른 템포’...IHF, 핸드볼 규칙 대폭 손질

H리그 2025-2026 시즌 새 룰 적용

국제핸드볼연맹(IHF)이 4년 만에 전면적인 규칙 개정을 시행하고 7월부터 새 규칙 적용에 나섰다.

한국핸드볼연맹은 지난 30일 “11월 개막하는 2025-2026시즌 H리그부터 새 규정에 따라 리그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 바뀐 규정을 소개했다.

바뀐 주요 규정을 보면 먼저 선수 보호를 위해 팔꿈치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 착용을 금지하며, 손톱을 반드시 짧게 잘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7m 스로 상황에서 골키퍼 얼굴을 맞힐 경우 레드카드(경기 실격)를 받았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2분간 퇴장만 받게 됐다.

기존에 수비수 발이 6m 라인에 닿은 상태는 골 지역 침범으로 보지 않았으나 개정된 규정은 수비수 발이 6m 라인에 닿기만 해도 골 지역 침범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비디오 판독은 경기 종료 30초 이내에 승패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7m 스로, 득점 선수의 규칙 위반, 공 소유권이 바뀌는 판정에 대해 심



지난 2월 16일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광주도지사공사와 인천시청 경기 모습.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판이 확실하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 한국핸드볼연맹 심판본부 차장은 “IHF가 경기 규칙 및 심판 판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 경기 규칙의 불확실성 최소화, 불필

요한 심판 개입 및 과도한 처벌 요소 제거, 득점 진행 및 빠른 템포의 핸드볼 추구 등을 목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IG 여자오픈 골프 총상금 975만달러

역대 최대...우승상금 20억원

올해 여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 총상금 규모가 975만달러(약 135억8천만원)로 책정됐다.

31일 영국 웨일스 미드 글레모건의 로열 포트홀 골프클럽(파72·6천580야드)에서 개막하는 올해 AIG 여자오픈 총상금은 지난해보다 25만달러 늘었다. 이는 이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총상금 액수다.

올해 대회 우승자는 우승 상금 146만2천500달러, 한국 돈으로 20억3천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 대회는 2019년까지 브리티시 여자오픈이라는 명칭으로 열렸고 2020년부터 AIG 여자오픈으로 변경됐다.

메이저 대회로 승격된 것은 2001년부터다. 2018년 대회 총상금 규모가 325만달러였고, AIG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2019년 450만달러로 증액됐으며 올해는 975만달러까지 총상금 액수가 늘었다.

올해 앞서 열린 메이저 대회들의 총상금 규모를 보면 US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1천200만달러씩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론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씩이었다. /연합뉴스